

“돌아와라!...門은 활짝 열려있다”

‘고민 중’ 양현종에 손 내민 KIA, 잔류 대비 적극 행보

조계현 단장 “4년 계약 등 다양한 대안 마련...18-19일 만날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빅리그 도전에 나선 에이스 양현종의 잔류에 대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KIA는 지난 14일 양현종 측과 처음으로 잔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조계현 KIA 단장은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KIA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양현종에게도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당초 KIA는 양현종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20일까지는 잔류 협상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변수가 생긴 메이저리그 상황에 마음고생이 심한 양현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먼저 움직였다.

‘잔류’와 ‘도전’이라는 갈림길에 선 양현종으로서는 늦어도 20일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조 단장은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다. 구단으로서 포스팅이 아닌 FA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건을 먼저 제시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려 했다. 양현종의 뒤에 KIA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또한 목표였다. 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어 “첫 만남에서 큰 틀의 이야기를 나눈 만큼 한주가 시작되는 18일 또는 19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KIA는 양현종에게 먼저 다가서며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빠르게 시즌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명분’도 배려해줬다.

조 단장은 “양현종은 우리 팀 ‘프랜차이즈 스타’다.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준비는 돼있다”면서 “단년 FA 계약이 아닌 4년 계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어 “구단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협상을 하겠다”며 “의견을 좁힐 수만 있다면 회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조건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잔류하게 되면 협상이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양현종이 기한으로 정했던 20일까지는 사흘 남았다.

양현종이 보직이나 마이네링거 거부권 등 세부조건을 내리으며 빅리그 진출 의지를 보인 만큼 메이저리그행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도전이 불발되더라도 환영 받으며 계약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됐다.

먼저 손을 내민 구단에게 이젠 양현종이 답을 할 차례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연임 성공

“소통·화합...배구인 자긍심 제고”

전갑수(사진) 광주시배구협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시배구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통합)제2대 광주시배구협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전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관위는 앞서 전 회장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전 회장은 대한배구협회와 광주시체육회 인준절차를 거쳐 광주배구협회장으로 활동한다. 전 회장의 임기는 이달 하순 예정된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 4년간이다.

전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프로배구팀 유치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 ▲초등학교 복수팀 창단 ▲생활체육·전문체육 연계육성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초·중·고 육성학교 및 구배구협회 재정 지원 ▲대한배구협회 심판강습회 유치 ▲화합·소통을 위한 광주배구인의 밤 개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회장은 “다시 한번 광주배구협회를 맡겨주신 배구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배구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시민들이 배구를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구선수와 지도자 출신인 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대한건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상임부회장·회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발전에 헌신한 체육인이다. 최근에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으로도 당선됐다.

또 광주 아나소사이어터 회원(106호)으로 가입하고, 지역대학과 광주시 등에 발전기금을 수차례 기탁하는 등 자수성가한 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공로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통령 표창, 광주 시민대상(체육 부문), 민주평통의장(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박희중 기자

제22대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에 피길연씨

“개방·교류...함께하는 연맹 혼신”

제22대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에 피길연(사진) 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피 당선인은 지난 16일 광주시산악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이다.

피 당선인은 재정자립도 향상 및 사무국 지원, 조직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5개구 산악연맹 결성,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시민 등산교실 활성화 및 동호인대회 개최, 전문산악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온라인 소통의 장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년하례식과 송년회 정례회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 당선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선배 산악인의 광주정신을 기리고 광주다운 광주산악연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생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면



서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겠다”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후배님들과 광주산악연맹을 소통·개방·교류를 통한, 함께하는 연맹, 신뢰받는 연맹, 역동적인 연맹을 만들아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피 당선인은 현재 ㈜신한수산생산지 단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결승 좌절 ‘銅’

배드민턴 대표팀, 태국오픈 銅5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10개월 만에 출격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5개를 수확했다.

대표팀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태국오픈 4강전에 단식 포함 5개 팀이 올랐으나 모두 패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삼성생명)은 4강전에서 세계랭킹 6위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0-2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 최종 3위를 거뒀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은 세계랭킹 8위 그레이시아 폴리-아프리아니 라하유(인도네시아)에 1-2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6위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과 남자복식 세계랭킹 8위 최승규(요넥스)-서승재(삼성생명)도 3위로 대회를 마쳤다. 혼합복식에 출전한 서승재-채유정(인천국제공항)도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대표팀은 지난해 3월 전영오픈 이후 약 10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나섰지만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아이언 맨’ 윤성빈, 11개월 만의 실전서 월드컵 동메달



윤성빈이 지난 15일 스위스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20-2021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6차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2분 17초32를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한 후 기뻐하고 있다. 윤성빈이 공식 대회에서 트랙을 달린 건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 3-4차 시기 레이스를 치른 지난해 2월 28일 이후 322일, 11개월 만이다. /EPA-연합뉴스

이강인, 발렌시아 떠나나...

스페인 매체 보도 “구단과 재계약 진전 없어...”

이강인(20)과 소속팀 스페인 프로 축구 발렌시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스페인 마르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 구단 측이 협상을 이어가려 하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유스 시절부터 함께 해온 구단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는다”며 “2021년판 페란 토레스”

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6월30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이강인도 토레스처럼 다른 팀으로 떠나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강인의 이적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1년 10살의 나이에 발렌시아 산 하우스티에 입단한 이강인은 2018년 구단과 재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군에 데뷔했다. 당시 바이아웃 금액으로 8천만유로(약 1천67억원)를 내걸 만큼,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구단의 미래’로 여겼다.

그러나 이강인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마르카는 “이강인은 이번 겨울 몇 차례 이적 제안을 받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는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을 찾고 싶은 것”이라며 “발렌시아는 올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를 받고 그를 다른 팀에 보내거나, 혹은 계약이 끝난 뒤 이적료 없이 놓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해서는 “아직 1군에 정착하지 못했고, 지난 시즌 감독의 경질과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상황 속에 최고의 기량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